

한국, 쿠바와 공식 외교관계 수립...193번째 수교국

양국 유엔 대표부 외교 공한 교환 공관 개설 등 후속조치 논의 예정

한국이 지금껏 외교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했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

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고 북한과 단독 수교한 국가는 기존 세 곳에서 팔레스타인, 시리아 2 곳으로 줄었다.

외교부는 쿠바와 수교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1만4000명의 한국인이 쿠바를 방문했다. 현재 쿠바에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이 거주 중이다.

양국은 향후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양국은 북한의 반발과 방해 공작 가능성 등을 감안해 몰밭에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 2016년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이 최후로 쿠바를 공식 방문하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15일 우리나라와 쿠바 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해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후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수교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갈수록 심화하는 반면 우리나라 외교 지평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

로 풀이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남미의 모든 국가와 수교하게 됐다. 이를 통해 대(對) 중남미 외교,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 지평이 더 확대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여개 국과 수교를 하고 있고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허버나에 대사관을 운영할 정도로 중남미 거점국 중 하나다. 비동맹 운동과 제3세계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쿠바 수교는 한국 외교의 숙원이자 과제였다"며 "이번 수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의 긴밀한 협업과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관광 활성화까지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항공편이 중요하지만, 아직 한국과 쿠바는 직항항공편이 없다.

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 할 경우 거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당장 여행 활성화에 걸림돌로 꼽힌다.

15일 외교당국과 여행업계에 따르면 허버나, 노랑풍선 등 주요 여행사는 현재 쿠바를 방문하는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들 여행사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쿠바만 방문하는 상품 또는 쿠바와 중남미 같이 방문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국의 국경이 폐쇄되며 사라진 상태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1만4천명의 한국인이 쿠바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준비 단계부터 밀착 지원...광주시, 글로벌대학 공모 지원 본격화

지역중심 대학지원 기본계획 수립 예비지정 평가 대비...자문단 운영

광주시가 글로벌대학 공모 사업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기본계획(안) 설명회' 및 '글로벌대학30 공모 신청 관련 대학 간담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지역대학 부총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담당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리이즈(RISE) 기본계획 설명, 글로벌대학30 공모 참여대학 간담회, 대학별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리이즈(RISE)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대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지역발전 방향에 맞춘 광주형 리이즈(RISE)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리이즈(RISE) 기본계획으로 미래인재도시, 신경제도시, 신활력도시, 교육혁신도시 등을 4대 전략으로 정하고, 4대(UP) 프로젝트로

인재 스킬 업(SKILL UP), 기업 밸류 업(VALUE UP), 지역사회 그로우 업(GROW UP), 대학 리이즈 업(RISE UP)을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올해 교육부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평가에 대비해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수요자 요구 분석 반영, 글로벌 혁신전략 강화 등 공모 신청 준비 단계부터 대학지원 자문단 등을 운영해 밀착 지원한다.

시는 특히 예비지정 대학의 본지정 선정을 위해 대학 내 전담팀과 산시 협력하는 원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비 1000억원에 따른 대응 투자금을 투입해 대학 혁신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 육성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글로벌대학 공모에 지역 대학들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광주시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리이즈(RISE) 전환을 계기로 대학혁신에 힘을 모아 지역 인재의 취·창업과 지역 정부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와 지역 대학 관계자들이 15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기본계획(안) 설명회' 및 '글로벌대학30 공모 신청 관련 대학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폐지 수집 노인에 공익형 일자리 지원

전남도, 1대1 면담 참여 유도

전남도가 보건복지부의 폐지 수집 노인 지원 대책에 대응해 도내 폐지 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하고 전방위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정부의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지 수집 활동 목적 중 '생계비 마련'이 54.8%로 가장 높았다.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로는 '경제적 지원'이 85.3%를 차지했다.

우울 증상을 보인 노인 비율은 전체 노인(13.5%)보다 폐지 수집 노인(39.4%)이 훨씬 높았다.

특히 폐지 수집 노인은 월 평균 25일(하루 5.4시간)을 일하고 15만9000원을 버는 반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한 달에 10일(하루 3시간)을 일하고 29만원을 받고 있어 폐지 수집 어르신의 정당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2월 한 달간 도내 고물상 319개소를 방문해 폐지 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1대1 면담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참여 가능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에는 월 수당 29만원을 보장하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에는 월 76만원까지 받게 된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어르신에게는 자원재활용 시장형 사업단과 연계해 폐지 수집 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평균 38만 원의 수입을 보장받는다. 방한용품, 야랑 장비 등 안전용품과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해상풍력 글로벌 경쟁력 선점한다

상생발전 포럼, 비전선포식 열고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 등 논의

전남이 글로벌 해상풍력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와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국내 풍력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본격 논의됐다.

전남도는 15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해상풍력 기업·기관 대표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산업 상생발전 포럼을 열어 산·학·연·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4개 지역대학과 3개 연구기관, 6개 관련기업이 참여하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상생발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바다의 바람, 전남의 힘, 한국해상 풍력의 수도를 품다'라는 상생발전 비전을 선포하고 국내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과 지역주민과의 상

생형 모델을 연구하면서 인력 양성 과정, 산업 경쟁력을 선점할 그린 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 부품 국산화,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신안군 일대에 48조 5000억원을 투자, 8.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 현황, 배후단지 조성계획, 관련 규제 및 주민참여 개선방안 등을 소개하고 고용 전망과 산업경쟁력 확보 전략, 전남산 부품·소재 사용에 따른 특혜 방안 등을 고민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전남에서는 신안 해상 풍력 집적화단지(3.7GW) 지정, 8.2GW 선도사업 해상부 공사 착공 및 준공, 세계 최대 풍력발

전 터빈 제작사인 베스타스와 터빈공장 설립 투자협약 등 본격적인 성과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멀게만 느껴졌던 해상풍력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산업생태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신청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종합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필드 매니저 교육생 모집

서진그룹 엘리체 필드 매니저(캐디) 교육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인원	- 40명 ~ 50명, 남·여
교육비	- 없음, 교통비 본인 부담
교육기간	- 30일, 단기속성코스
취업	- 수료후 100% 취업보장 - 화순, 함평 엘리체골프장
수익	- 월 300~500만원 - 능력에 따른 차등 수입
특전	- 교육원 수료증 수여 취업후 숙식 제공 - 화순, 함평 엘리체골프장

· 모집기간: 2024년 2월 5일 ~ 2월 16일까지
· 면접: 2024년 2월 19일 ~ 2월 21일(3일간)
· 합격자통보: 2024년 2월 22일
·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본 각 1통
· 교육장소: 이론교육 - 광주본사, 실전교육 - 골프장
· 접수방법: 팩스(061-371-2580) 또는 방문접수
· 연락처: 061-320-7700, 061-373-7733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 합격자는 즉시 폐기 합니다.

서진그룹 엘리체 교육원장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가능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발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재출공고)

주식회사 케이에스정보기술(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우리전자(이하 '을'이라 함)는 서기 2024년 02월 15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함.

2024년 2월 16일

'갑' 주식회사 케이에스정보기술 (법인등록번호: 205911-00418)
전라남도 고흥군 금안면 옥봉마을길 136 대표이사 서운호

'을' 주식회사 우리전자 (법인등록번호: 164511-0035255)
충청남도 보령시 대정로 244(화산동) 대표이사 김혜숙

72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朝日報

· 지역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영 신 571-7659	· 오 치 266-7801
	· 흥 흥 433-1503	· 유 신 433-1503
동구	· 남 광 673-6936	· 동 명 222-9054
	· 흥 부 225-6001	· 흥 명 222-9054
	· 흥 정 222-8171	
남구	· 남 부 673-6936	· 백 문 651-1833
	· 북 선 673-6936	· 송 마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흥 명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